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



한 광 수

(現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교수)

조사일 : 2007년 7월 16일

조사자 : 이 아 란



한광수 韓光洙

1946년 10월 1일 출생

전공분야 : 중국경제 , 경제발전, 국제금융

담당과목 : 중국경제론 , 국제경제론, 경제개발론

학력

1974 - 1978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학사

1979 - 1981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9 - 1990 미국 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1993 - 1996 중국 베이징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2004.8 - 2006.7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 부교수

2004. 9 - 현재 · 中國 清華學 韓中歷史文化研究所 研究委員

1998.03 ~ . ·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 동북아지역학부 조교수

1996. 05.- 현재 · 中國 北京市場經濟研究所 高級研究員

1994.02 ~ 1996.06

· 駐중한국대사관, 한솔제지, 유공엑시켄, 현대건설, 선경, 유공,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섬유산업연합회 자문

1991. 0 - 1996 · 주중한국대사관 경제 자문 , 한솔제지 및 SK 중국고문

1991. 04 - 1993. 06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초청연구원

1988. 09 - 1989. 02 · 한림대 중국경제론 강사

1984. 11 - 1985. 09 · 외무부 아주국 중국담당 파견연구원

1980. 07 - 1993. 06 · 산업연구원

1979. 02 ~ 1980. 06 · 국제경제연구원

1979. 0 - 1998 · 산업연구원 중국실 연구원 , 실장

1999. 0 - 2006 · 한솔제지 사외이사

2002. 0 - 2003 · KBS 객원해설위원

2004. 0 - 현재 · 미디어 오늘 객원논설위원

현재 · 비교경제학회 이사

- 현재 · 동북아경제학회 이사
- 현재 · 전경련 중국위원회 자문위원
- 현재 · KIEP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 현재 · 포스코 박 태준 명예회장 중국경제 자문

연구실적

◎ 주요 저서 및 보고서

- 미 · 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삼성경제연구소, 2003.10
-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2
- 현대중국의 이해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 2005.8
- 동북아경제환경 변화와 인천의 국제화 , 인천발전연구원, 2005.1
- 중화경제권 부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 대한상공회의소, 1997.11.
- 북방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 산업연구원, 1991.4.
-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 산업연구원, 1989.
- 중공의 기계공업 현황과 전망 , 산업연구원, 1987.
- 2000년대 중 · 대만 관계 전망 , 국토통일원, 1985.
- 중 · 일 경제교류 전개과정과 현황 , 산업연구원, 1984.
- 중공의 경제특구 개발과 우리의 대응 , 국제경제연구원, 1981.
- 우리나라와 사회주의 제국간 무역에 관한 연구 (공저), 해외경제연구소, 1979.
- 중공의 개방경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 (공저), 경제과학심의회, 1981.
- 한중간 무역타당성 검토 , 해외경제연구소(공저), 1979.
- 현대중국의 정치구조 (편역), 온누리, 1988.
- 국별편람:중국, 산업연구원 편람시리즈 제1호, 1983.1988
- 현대 중국의 정치구조, 온누리, 1988
-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산업연구원, 1989.4

◎ 주요 논문

- v · 인천 '경제 허브'화의 외부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006. 8)
- 위안화 환율변동과 미 · 중 통상관계 (현대중국연구, 2006. 8)
-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12)
- 중국 서부개발전략의 성격분석 (현대중국연구, 2001. 12)
- 아시아 통화 위기와 중국의 금융구조조정 (비교경제연구, 8권1호 2000. 12)
-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인민폐 환율 변동요인분석 (동북아발전연구, 1999. 2)

- 화교경제권의 외환위기와 중국의 경제적 대응 (인천대 교육대학원, 1999)
- 장쩌민 시대 중 · 미 관계의 변화와 전망 (전남대 아태지역연구 제2권 1호 1999)
- 중국입장에서 본 동아시아 외환위기 (세종연구소, 98. 5)
- IMF 지원 체제하에서의 한 · 중 경험전망과 대응전략 (상공회의소, 98. 1)
- 동남아 외환위기와 중국의 대응 (산업연구원, 97.12)
- 동아시아 통화위기와 중국의 환율 전망 (산업연구원, 98.1)
- 중국의 금융체제개혁과 시장경제 메카니즘 (비교경제학회, 97. 11)
- 韓 · 中經濟協力の 現段階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研究院, 97. 11)
- 중국의 환율운동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1997.3)
- 'China's Economic View in the Jiang Era.' Economic Review(KIET, 1997.3)
- 國際資本流動與中國利用外資戰略構想 : 中國資本市場國際化方案探索 (국제자본유동과 중국의 외자이용전략방안: 중국의 자본시장국제화방안 탐색), 박사학위논문, 北京大學 經濟學院, 1996.6.

◎ 매스컴 주요 활동

- 미디어 오늘 , 북-중,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2006.10.11)외 30여 편
- 동아일보 , 클린턴의 방중과 주룽지(1998. 6. 16)외
- 한겨레 , 인민폐 평가절하 요인(1998. 3. 12)외
- 한국일보 , 미중경제밀착시대(2002. 2. 21)외
- 조선일보 , 이젠 중국 바짓가랑이 붙들자고?(2006. 3. 11)
- 매일경제신문 , 중국쇼크 일희일비 말아야(2004. 5. 5)외
- 문화일보 , 홍콩귀속과 동아시아 질서(1997.6. 26)외
- 서울경제신문 , 위안화 절상 요인(2005. 10. 9)외
- KBS, 감수: 중국 특집 '13억의 아들 등소평'(2005. 8.10)외
- MBC, 강연: 중국 경제체제의 특성(2002. 6. 8)외
- 세계일보 , 홍콩귀속과 한 · 중 관계 (1997. 6. 30)외 다수

◎ 주요 장연 및 자문

- 여의도 차이나 포럼 , 중국 급부상의 영향(국회의원중 포럼회원, 2006. 6. 26)
- 중앙공무원연수원 , 중국 시장구조의 변화(경제관련부처 국장, 2004. 10.10)
- 포스코 , 중국 급부상의 성격과 대응(박태준 명예회장 , 2003. 3. 20)

- 외교통상본부 , 미 · 중 관계와 한반도 (사무관- 장관, 2003. 5. 7)
- 신세계 , 중국 시장의 잠재력과 대응(신세계 임원, 2002. 5. 10)
- 능률협회 ,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경제환경의 변화(회원사 사장, 2003. 2. 30)
- SK그룹 비서실, WTO 가입이후 중국시장개방(그룹 임원, 2002. 10. 9)
- 무역협회 , 한중 경제협력의 신단계(중국 관료 기업인, 1998.2)
- 대한상의 , 중국의 경제대국화 전망(한중민간경제협의회 회장단, 97. 12)
- 국회 동북아연구회 , 등 사후 중국의 권력구조 전망(국회의원중 회원, 97. 3)
- 한솔제지 ,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그룹 임원, 1998. 11. 10) 외 다수

주요 논문 요약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004)'로 발간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위기로 맞을 것인가,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는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틈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정치적 부상과 함께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에 대한 신뢰와 책임도 점차 커질 것이다. 기존의 세계질서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 경제를 비롯한 중국사회 전 분야의 발전과 변화는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섬유, 신발, 가전, 일반기계 등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는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한국을 추월했으며 제조업에 있어 기존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위상까지 넘보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제3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에게서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수교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외적인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1세기 세계패권의 헤게모니를 겨누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과 견제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는 복잡 미묘한 미-중 관계의 틈새를 이용하면서 상대적 균형실리외교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발전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다.

중국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책은 먼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혁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다(2장).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을 전제로 하여, 오늘날 중국이 분출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최근의 변화 역동성과 함께 분석, 정리하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중 관계의 개선에 따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성장전략, 그 과정에서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정치 리더십, 부실채권과 국유기업 문제, 인민폐 평가 문제, 중국의 서부 대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미-중 관계의 틈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책은 또한 한-중 수교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중 협력의 특성을 정리하고,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접근, 나아가 장차 한반도 경제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 3장)

지금 우리는 ‘기회와 위기’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시대의 도래를 위기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중 시대와 중국발전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다음의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중 시대를 의식한 국제적인 ‘시장협력’을 중시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집력이 강한 범국가적 정치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전문가들이 국가전략에 참여하도록 관련분야를 개혁하고, 최소한 국가안보와 경제협력 분야는 경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외교 분야에 관하여는 범국민적이고 전략적인 협의체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시야를 넓히고 시장협력 기능을 강조하여 ‘동아시아 협력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일제 잔재의 청산 없이 근대화 길을 걸어 왔으며, 지역감정과 빈부격차와 노사갈등도 획기적인 해소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아직 봉건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한 채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영향아래서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향한 장기 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대응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개선 문제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변화와 인천 개방화의 과제

이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천의 개방화 방안을 재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를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차원에서 중국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인터뷰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니에요. 비도 오는데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비도오고, 집도 먼데 빨리하고 가야죠? 얼른 시작해봐요

먼저 중국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쭙볼게요.

- 중국의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보고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수학하신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동양사학과 졸업했고 이때는 중국근현대경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중국경제사를 수료 하고, 미국 벤더빌트 대학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학 한 후에 중국 북경대학 경제학원 박사학위 취득 했습니다.

수학 과정 중 중국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는지요?

- 당연히 학부, 대학원, 북경대학에서 다수 중국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 했고, 중국에 대한 인상은 중국은 유구하고, 다양하면서도,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를 해오시면서 스승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셨으며 그분들이 선생님의 연구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학부때 고병익 교수님과 민두기 교수님께 영향 받았는데 고병익 교수님께는 중국의 역사상 정립에 영향에 관한것과 민두기 교수님께는 자료 수집의 접근 방법에 대해 영향을 받았고, 대학원때 안병직 교수님께 한국 현대경제사의 접근 방법, 그리고 북경대 다닐 때 蘇灼基 교수님께 중국경제의 접근 방법에 대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학문의 길을 걸으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영향을 미친 인물이 모택동과 덩소평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중국의 정치 리더십이 중국의 발전과 변화,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두게 하였습니다.

연구초기 참가했던 학술회의와 연구회가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 국내에서는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비교경제학회, 동북아경제학회, 현대중국학회 인천발전연구원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다수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북경대학교,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등의 세미나 다수 참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대부분 독자적 관심사 중에서 선정하죠.

연구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비와 관련된 변화가 있는지요?

- 연구비는 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따로 연구기관 같은 곳에 연구비용을 신청 하신적 없으신가요?

- 없어요.

이유가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신청을 안하신건가요?

- 뭐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있겠지만 연구비나 그런걸 크게 문제 삼아 본적이 없어서 안했어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구와 경험이 어떻게 투영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강의에 밀접하게 반영되죠.

강의 하실 때 주로 어떤 경험을 많이 강의 하시나요?

-북경 현지 주재 경험, 상해 및 북경 투자 경험 등등 이런것들 이지요.

그럼 강의 내용은 주로 중국 투자 같은 부분인가요?

- 주로 중국 경제에 관한거죠.

강의 내용 같은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요?

-최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 중국에 대한 관심이 다소 막연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열의는 대단하여 잘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중국학계에 대해 논평을 하신다면?

- 최근 연구의 지평이 급속하게 확산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과정에서 서구사상 (Hegel, Marx, Weber, Parsons, etc.) 및 영미 중국연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 저변에서 상당한 정도 작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Hegel, Marx, Weber, Parsons, etc.) 저서는 학생 때 한 번씩은 읽지 않나요?

중국학술계나 기타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신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은 있으신지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런 경험이 적지는 않죠.

중국의 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 최근의 발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예요. 중국의 미래는 발전하는 단계니 순조롭지만은 않겠지만, 매우 낙관적이라고 봐요.

연구 과정 및 연구 경험(연구과제, 연구자료, 연구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 이런거 뻘하지 않나요? 연구과제는 주로 중국경제에 관한 것이고, 자료는 주로 서적, 논문, 기타 각종 정보를 통해 얻게 되고, 연구방법은 자료 분석과 평가, 토론을 통해 진행 됩니다.

본인의 연구에 가족이 준 영향이 있는지요?

- 없어요

한국에서 중국 연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서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의 정치가나 정치학자와 교류를 하시고 계신지요?

- 아니요.

소속하신 연구단체는 무엇이며 그 연구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거나 맡고 계신지요?

- 비교경제학회, 동북아경제학회 등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 생애에서 본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성과는 미중관계 연구에 관한 것이고, 아쉬움은 글썄요...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더 지나고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서 인터뷰 하느라 수고했어요.